

특별회의[해외인권정책회의]

기후금융 맥락에서 본 인권과 부패

2022. 10. 12.(수) 16:00-18:00

주관: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(RWI), 주한스웨덴대사관

배경

2021년 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인권정책회의에서 인권과 부패간 연계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펼친 데 이어, 2022년 해외인권정책회의에서는 기후금융에 주목한다.

화석연료 제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경감을 위한 적응 대책을 이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. 기존에 언급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 및 적응하고,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, 기후변화 경감 대책을 개발 및 이행하는 것은 기술/방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실행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. 녹색기후기금 등을 통한 자원 조달 방안들은 아직 출범 초기 및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. 지방정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, 안전,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효과적,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

이에 본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및 대응, 내재적 부패 위험, 인권 존중 및 보호 관련 난제들을 연계하여 논의한다.



목표

1. 지역 기후변화 적응 계획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고, 정치적/사회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보호의 우선순위를 균형있게 설정하는 등, 전체적인 비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. 또한, 재원 조달, 예산 설정, 및 운영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, 청렴성, 공정성, 책임성이 필요함을 지역사례와 함께 제시한다.
2. 모든 분야의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하려면 인권 이행 약속 및 원칙에 따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예산관리가 중요함을 지역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.

주요 논의사항

1. 기후위기 경감의 시급성, 개인/집단의 권리 보호 및 존중, 투명성과 책임성 기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관리 필요성 간의 연계
2. 지역에 적합하고,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며, 포용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, 인권 예산편성의 합의와 장점

